



생명보험의 미래

민기식

2024.02.29.(목)



목 차

I. 숫자로 보는 보험산업

II. 보험산업 성장요인

III. 도전적 환경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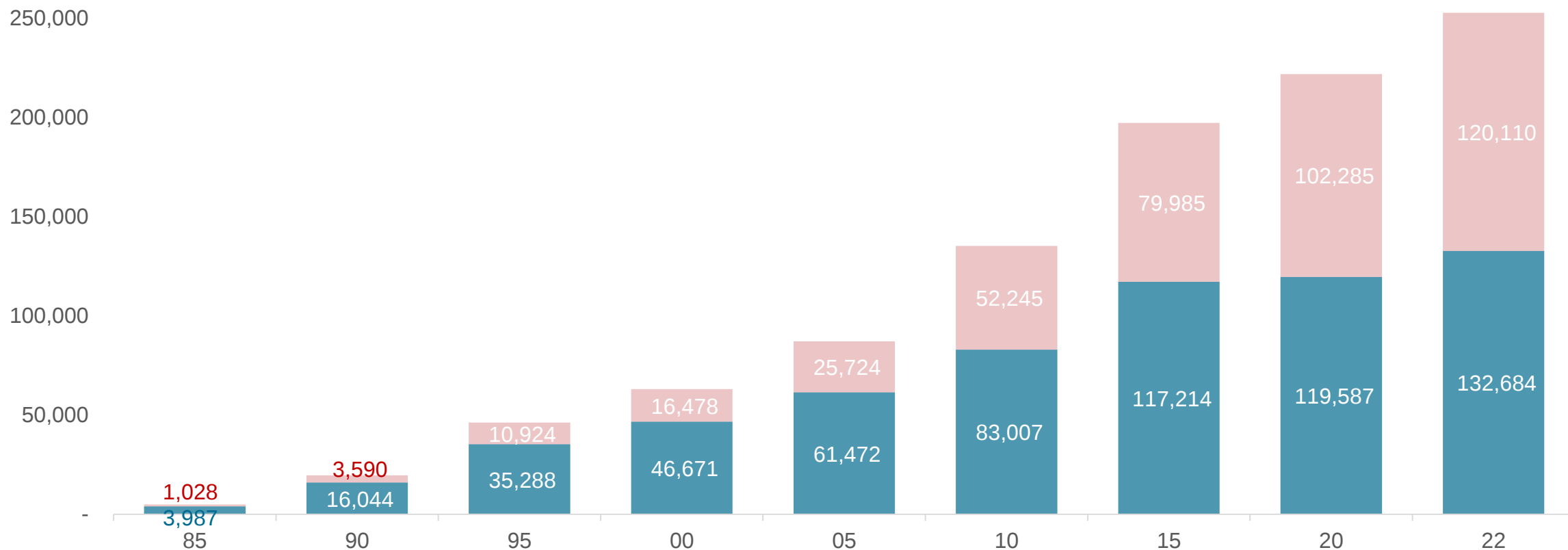
I

숫자로 보는 보험산업

I. 숫자로 보는 보험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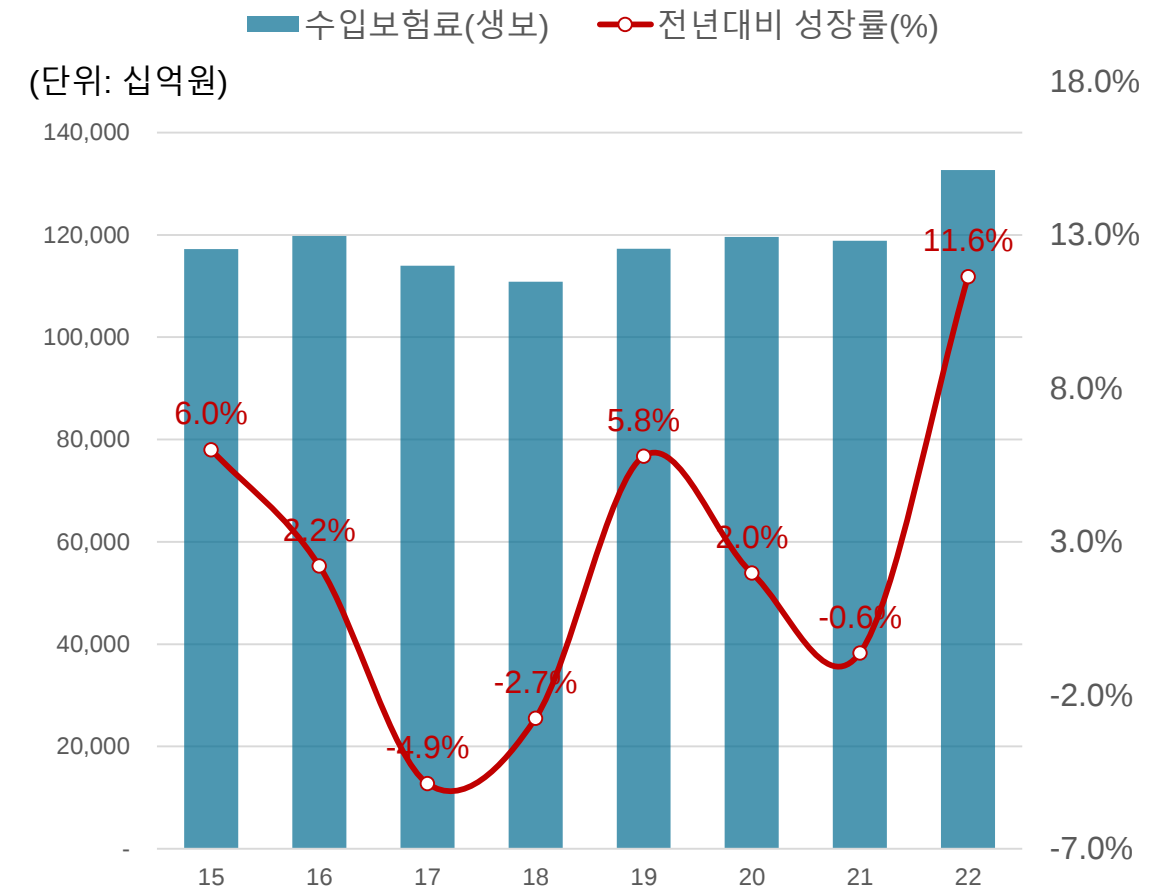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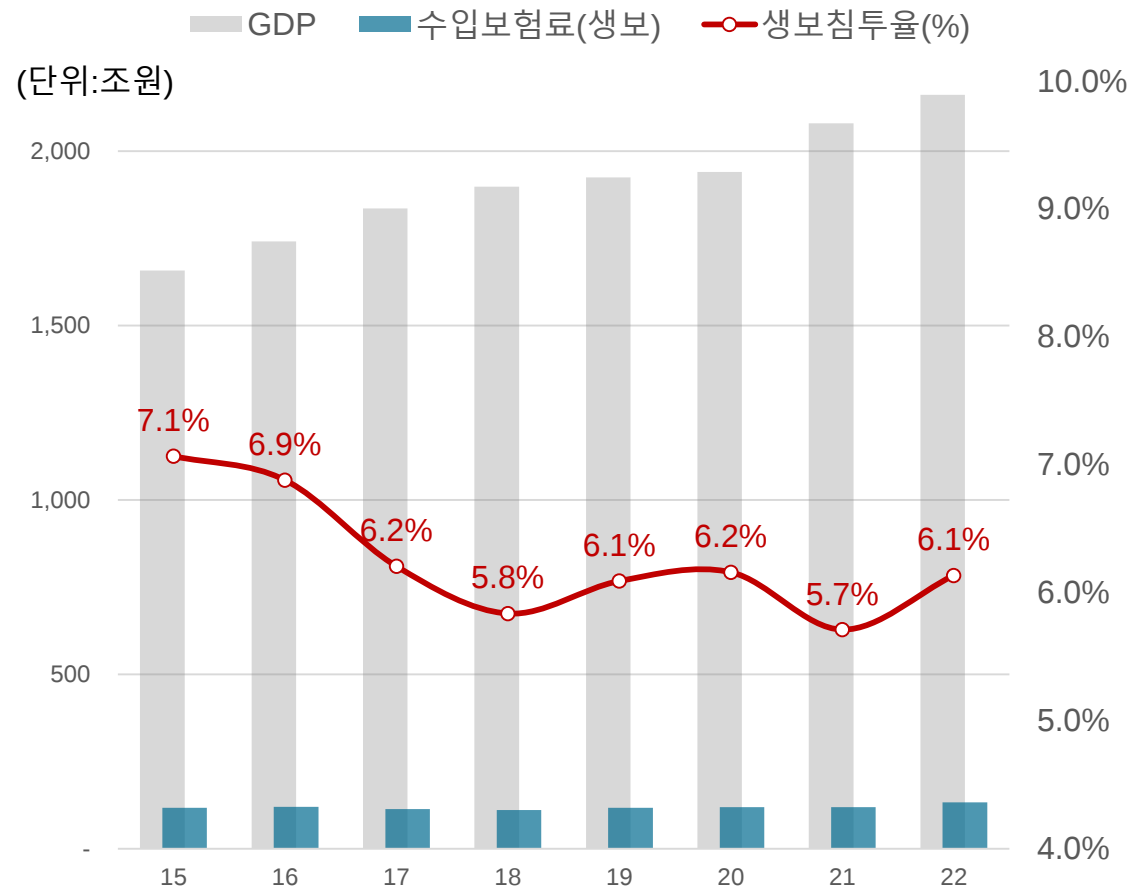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수입보험료(생보) ■ 수입보험료(손보)



* 자료: 통계청

I. 숫자로 보는 보험산업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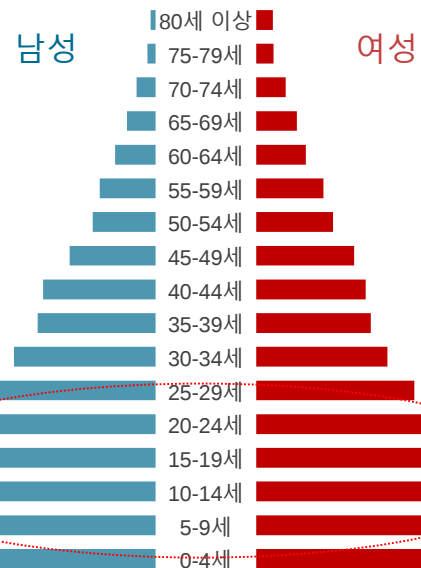
보험산업 성장요인

- 인구변화
- 경제성장

II-1. 인구수 &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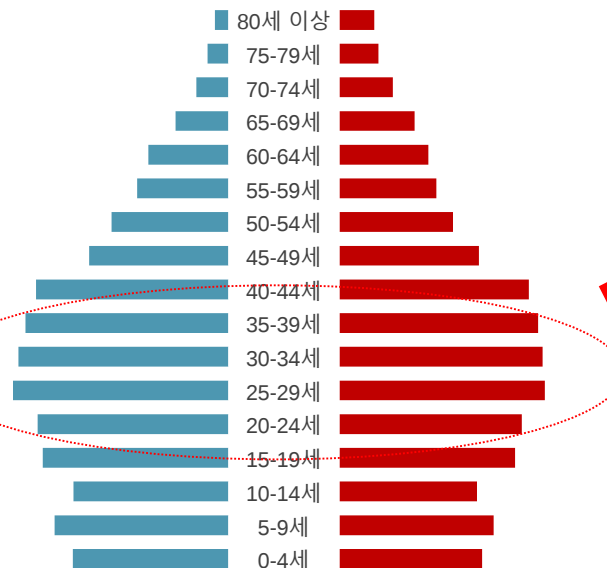
‘80

총인구 3,812만명
출산률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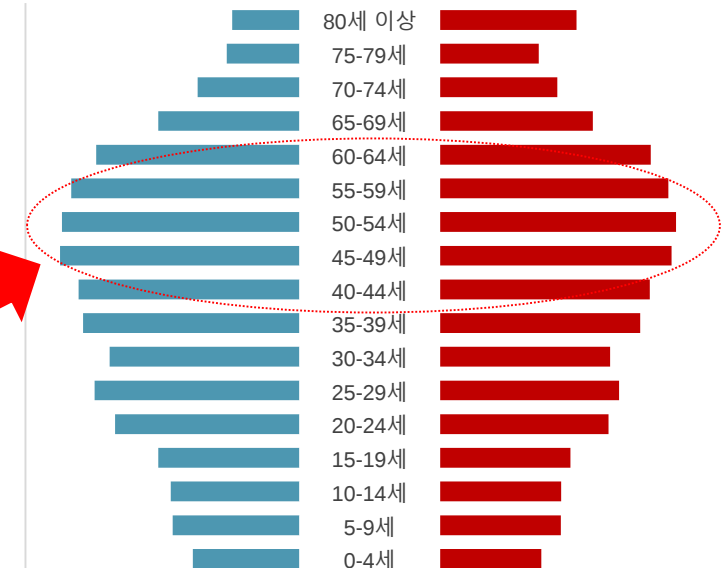
‘00

총인구 4,701만명
출산률 1.48



‘20

총인구 5,184만명
출산률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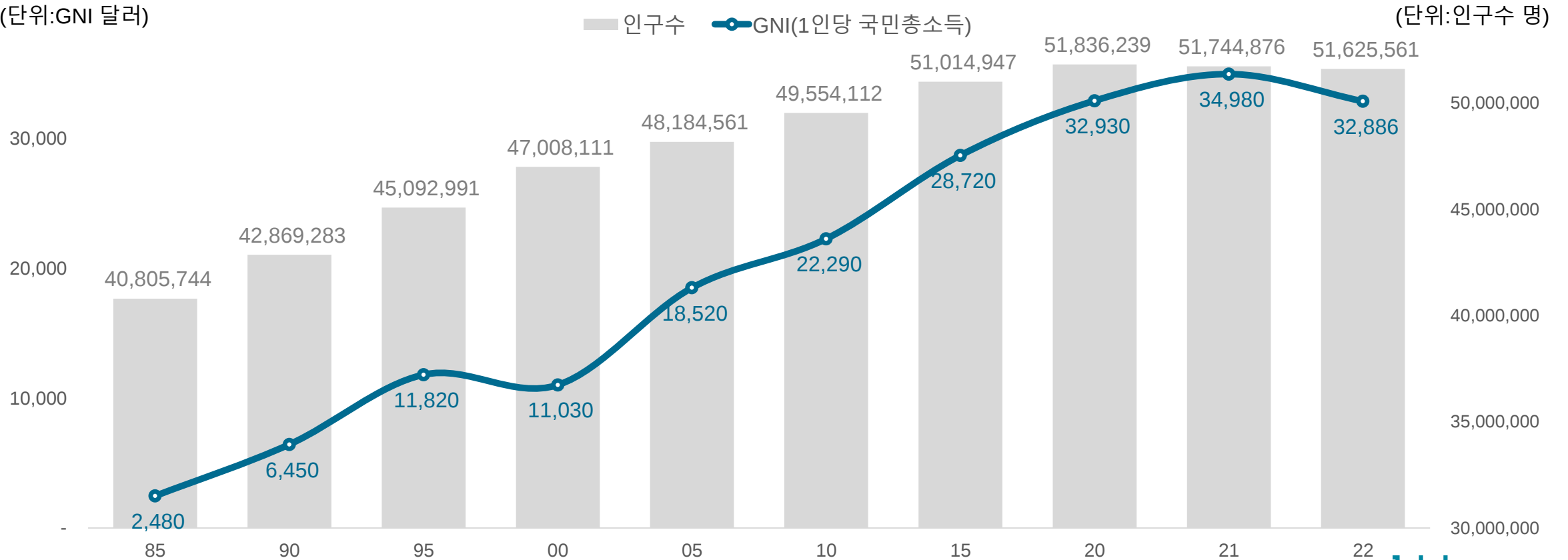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II-2. 경제성장(한국)

- GNI(1인당 국민총소득) '94년 1만달러, '06년 2만달러, '17년 3만달러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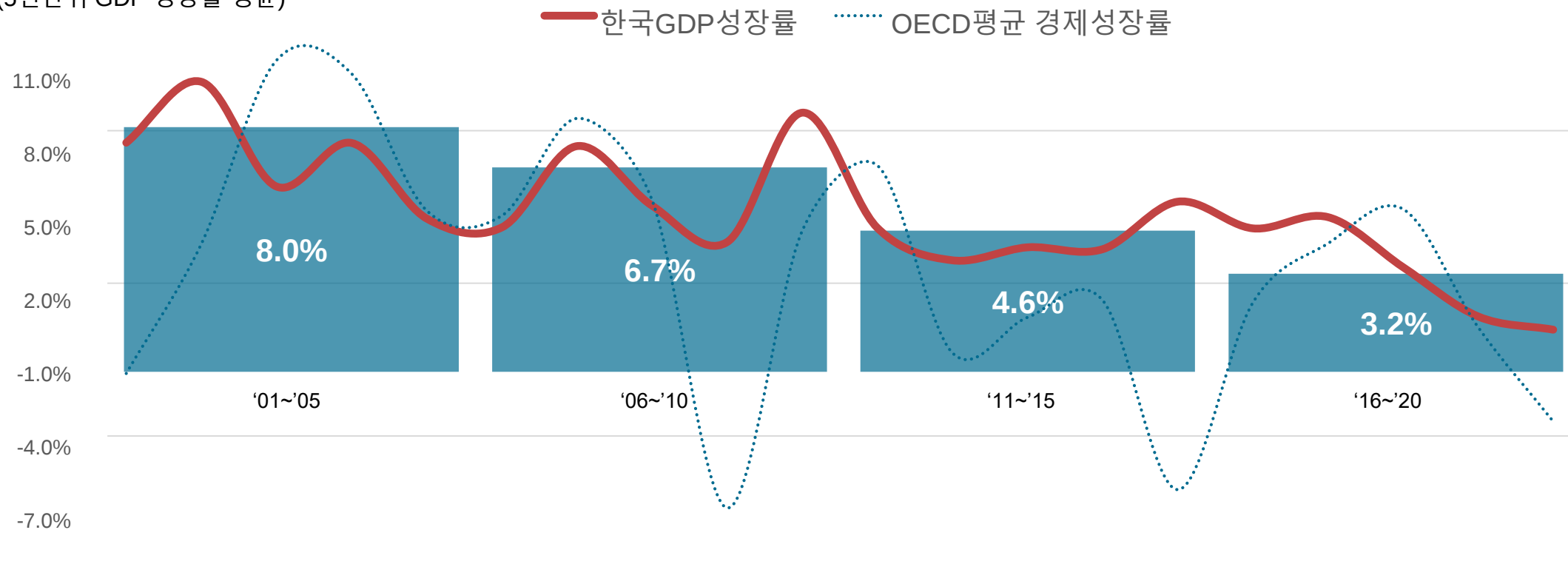
(단위:GNI 달러)



* 자료: 통계청, IMF

II-2. 경제성장(한국 & OECD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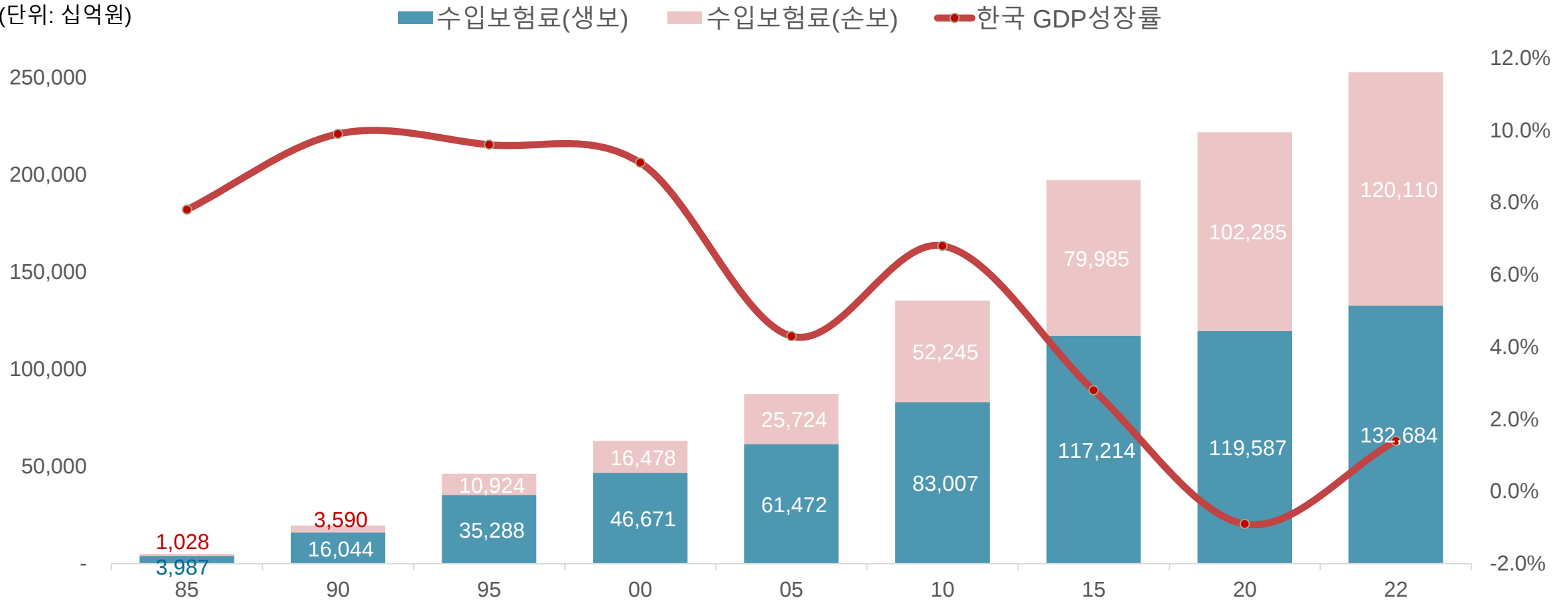
(5년단위 GDP 성장률 평균)



* 자료: OECD, IMF, World Bank

II-2. 경제성장(GDP성장률 & 보험산업)

(단위: 십억원)



* 자료: 통계청



도전적 환경

III-1. 도전적 환경(산업 외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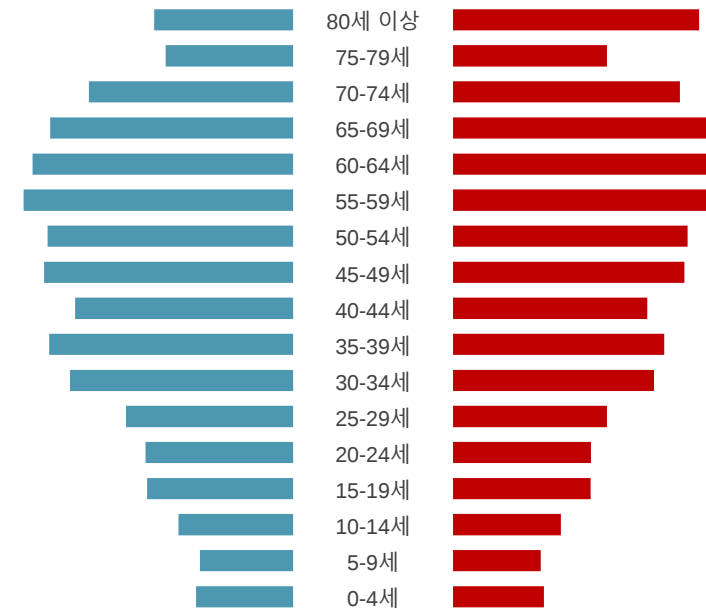
출산률 세계 최저

국가	2020 출산률	※OECD 평균 1.58
멕시코	2.08	
프랑스	1.83	
스웨덴	1.66	
미국	1.64	
영국	1.56	
독일	1.53	
캐나다	1.4	
일본	1.34	
대한민국	0.84	

* 자료: IMF, World Bank

'30년, 총인구 줄고 고령화 가속

총인구 5,09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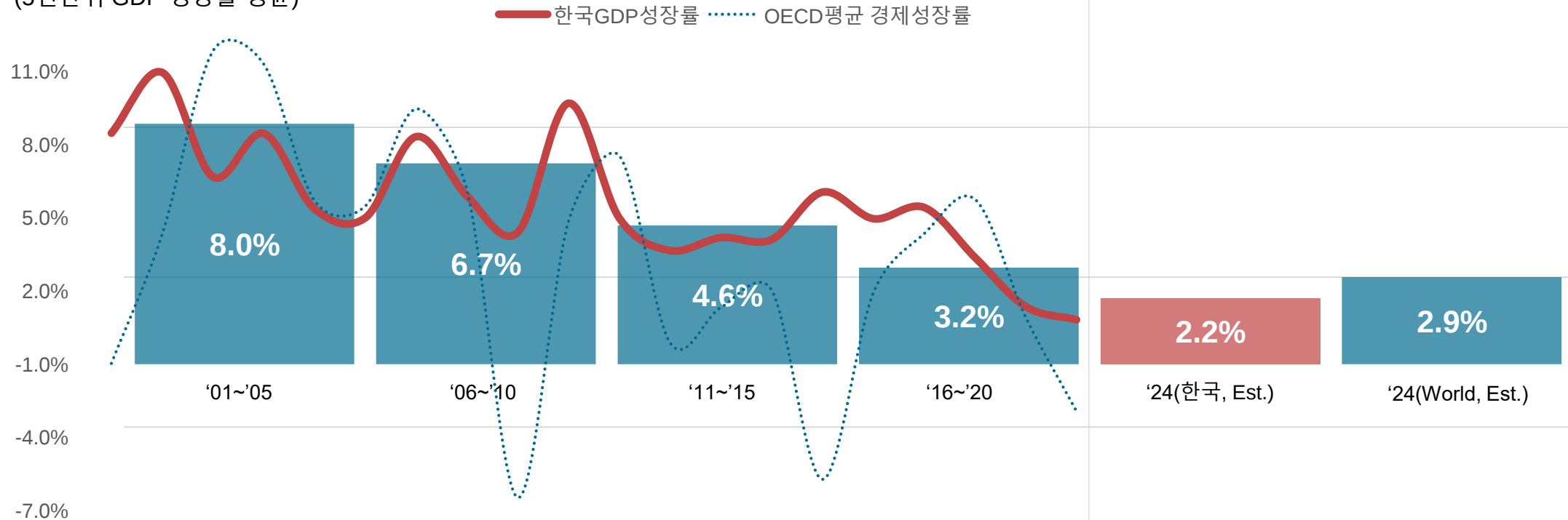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III-1. 도전적 환경(산업 외부 변수)

5년 뒤, 한국 GDP 성장률 0~1% 정체위기

(5년단위 GDP 성장률 평균)



* 자료: OECD, IMF, World Bank

III-2. 도전적 환경(산업 내부 변수)

1. 과도한 신계약 위주 경영

2. 과도한 보험금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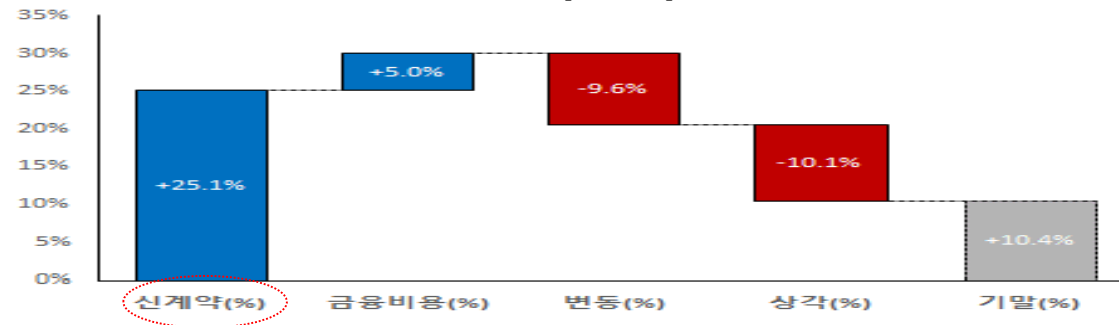
3. 투자보다는 비용절감 - 신 성장동력 개척 노력 부족(해외진출, 요양산업, 연금보험 등)

4. 미래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AI, Robot, 해외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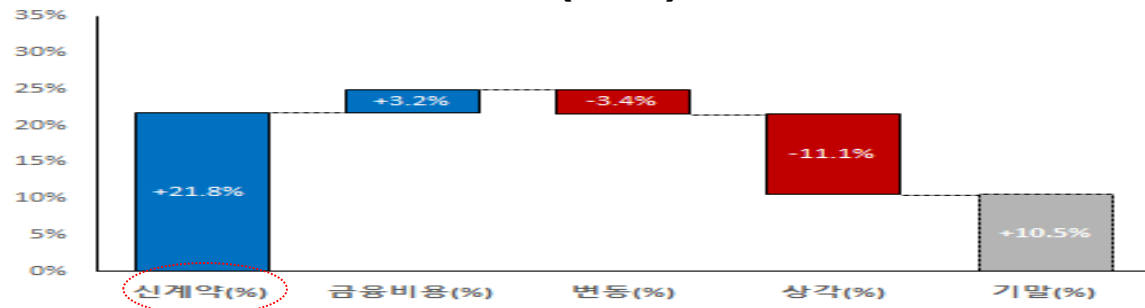
III-2. 도전적 환경(산업 내부 변수)

1. 과도한 신계약 위주 경영

2023년 생보사 보험계약마진(CSM)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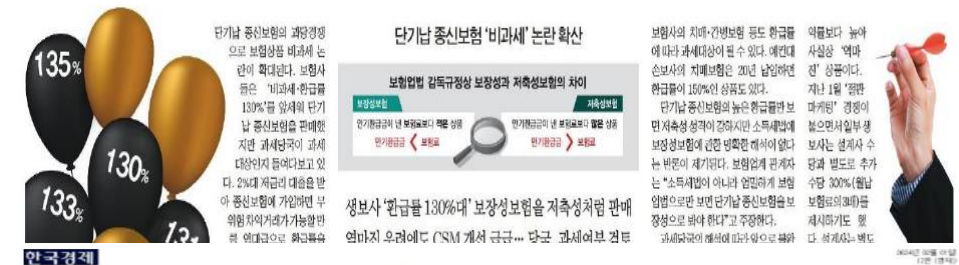
2023년 손보사 보험계약마진(CSM) 증감률



* 자료: 나이스신용평가

머니투데이

10년 뒤... “뺑”? 단기실적 부풀리는 보험사, 과세 위기 자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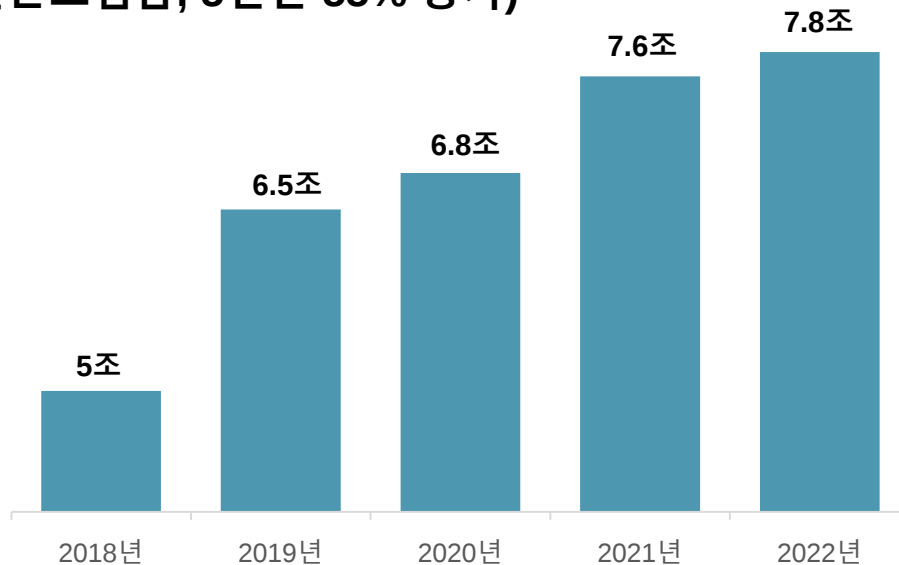
‘無해지 반값 보험’ 출혈경쟁 뛰어들 손보사들



III-2. 도전적 환경(산업 내부 변수)

2. 과도한 보험금 소비

5대 손보사 실손보험 연도별 지급보험금
(실손보험금, 5년간 55% 증가)



* 자료: 머니투데이 기사

한국경제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 물리치료 올 2조 넘을 듯

2023년 10월 24일
01면 (종합)

도수·연골증식 등 과잉진료 심각
손해율 133%... 보험사 손실 커져

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A3면
2018년 9900억원에서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증가

이투데이

도 넘은 간호·간병보험... 보험금 청구 한달새 3배나 '쑥쑥'

#. 50대 남성 A씨는 간호·간병보험 가입한 당일, 손이 찢히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이를 이유로 받은 보험금은 약 50여만 원. 20대 여성 B씨는 간호·간병보험 가입한 뒤 두통으로 하루 일일 보험금 약 20여만 원을 청구했다.

보장액 높아져서 암·백혈병까지 가세
영양상태 악화 보험사 건강성 우려
'금융감독 발 빠른 조치' 시급

통합서비스 사용 일주일 전 중순 이후
연도가 종료됨으로 높아지고 마케팅에
과잉하는 조짐이 보인다. 기존에는 한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면서
보험 회사들이 손이 찢히는 이유로 보험금
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0

만 이하 청소년으로 집중되고 있다. 간호
간병보험사들은 단독 보험으로 판매하
고 있다.

보험 금액이 높아지면서 시장도 비대
해졌다. A손보사의 경우 간호·간병보험
사용 일일 한도가 1만~2만 원 수준이었
던 것이 2022년 10월부터 4만원까지 대폭

주요 손보사 간호·간병보험 월당 보험금액 (단위: 만 원)

손보사	간호·간병보험	간호·간병보험	간호·간병보험	간호·간병보험
손보사	간호·간병보험	간호·간병보험	간호·간병보험	간호·간병보험

손보사 한 관계자는 "도 손보사는 전
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간호·간병보험
연계로 들어오는 계약이라는 얘기를 들었

다면서 "간호·간병보험은 손보사 전체 중
간병보험 사용이 전월 대비 40% 정도 증

가했다. 간호·간병보험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이 나빠졌으면 하는 분이다.
당국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통에는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한

다. 손보사 관계자는 "영양이 나빠졌으면
다"며 "영양이 나빠졌으면 다"고 말했다.

간호·간병보험 시장이 과열되고 있
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8일까지 주

요 손보사에 간호·간병보험 보장 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과잉 보험이나

과다 사용 유도 행위가 없는지 점검하
고 있다. 그 결과, 중환자 입원 기간이
장자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고지하고 있는

급여 항목을 발굴하고 있다. 수천만원
에 달하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이 지난
해 대법원 판결로 최고 25만원으로 제
한되자 올해 발발지연 치료가 급증한
식이다.

실손보험금이 일부에게만 편중돼 지
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가 전체 지급 보험금의 48%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사 손실도 크
다. 작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3%로
2021년(131%)보다 높아졌다.

강현우/최한중 기사

III-2. 도전적 환경(산업 내부 변수)

3. 투자보다는 비용절감 - 신 성장동력 개척 노력 부족(해외진출, 요양산업, 연금보험 등)

금융위 부위원장 "韓보험업 성숙단계...글로벌 시장 서 경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3 13:56

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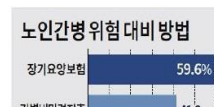
김 부위원장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보험료는 10.9%로, 전 세계 6.8%, 선진시장 9.7%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1인당 보험료도 선진 시장 수준에 근접했다"며 "이미 경쟁도와 성숙도가 높아진 시장에서, 보험회사 간 출혈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과 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영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보험산업 성장률, 수익성 측면에서 한국 대비 매력적인 국가가 다수 존재하고, 실제로 글로벌 선도 보험회사의 경우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요양 서비스 필요하지만 비용은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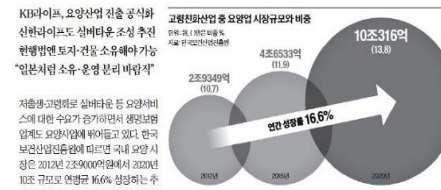
고령화 사회 요양서비스 수요 ↑
보험업계, 관련사업 진출 가속화

성인 10명 중 8명이 요양 서비스를



The JoongAng

요양시설 모자라 노인 줄서는데... 생보사 진출 힘든 까닭은



들이 요양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2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이 업계 최초로 요양선진 입출을 공시하면서 요양서비스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4월 KB생명라이프케어에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KB생명라이프케어는 해보미가 설립된 노년으로 2018년 위생관리지, 2020년 지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2019년 65억원, 2021년 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정 중

명 수준인데 두 곳의 대기자만 50
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
2025년까지 은평빌리지·참곡빌리지
동별리지(가칭)를 추가로 개소할
이다.

[illegible]

해가나 공공장소를 만지려 한다. 노인 요양시설 내반을 막고 있는 게 개념으로 인연 앞에서는 노의 주권 불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병 병통이다 크다. 노년보육시설은 지난 8월 '재가'와 '거주' 양기반'과' 발표에서 부족한 요양 인력 한계를 보완 '도·지·군·구'별 양기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시·군·구별 등은 앞서 요양시설 내반과 돌봄 공공서비스 등이 우려된다 한 것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요양 서비스 인력 증가율은 2027년 12만명 증가를 전망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 인력은 2027년 20만명 증가를 전망했다. 노인 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는 노인 요양서비스를 위한 대가나 물리적 리스크'이라고 강조했다.
---	--

朝鮮日報

노인 90%가 연금 받지만... 절반은 월 39만원도 안돼

최소노후생활비 124만원의 31% 수준… 평균도 60만원 불과

“연평균 인구는 아직 되고있으며, 요
즘에는 저출산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미
숙한 나라라는 것을”

충남의 한 여객선에서 관광업 일을 하
고 있는 김씨는 한숨을 쉬고 있다. 그녀는
연간 인구가 40만명 가까이 줄어
있는 집안에서 1995년부터 아이
를 출산하고도 4명밖에 없다.

고령화와 노후를 위한 연금 소득에 대
해서는 아직도 연금 연금의 중요성

대한연세대학교 치과 전문교수
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연간 평균인구 40만명
감소 추세에 대해 “조선, 고령
화요인, 노후 소득 생활비 120
만원도 안 되는 추세다.”

국민연금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100만
원만 생활할 수 없다. 국민
연금 100만원은 100만원
의 43.7%로 가장 적다. 20

[illegible]

노후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려면
이러한 세금과 다른 소득 제재가 필요하다.
다. 그러나 다른 세제 조항들과 개인
연금 가입 여부와 관련 없이 401(k)에 기
탁 34.4%로 현재 고액층이 35%의 수준
을 초과한다. 갑자는 현재로써는 연금계좌
는 다른 "2009년 6월 1일 고액층의 연
금 합계 수치를 2009년 6월 1일, 2009년 6월
34.4%로 다음 세대는 확대되는 추
세"라고 설명했다.

○후-장년층 연금 가입률은 78.8%
연간 2009년 6월 1일, 직장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 등 총 1개 이상 연금에 가입
하고 있는 비율은 78.8%로 2009년 6월 1일
현재는, 65세와 69세 각각 82.9%와 76%

III-2. 도전적 환경(산업 내부 변수)

4. 미래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AI, Robot, 해외진출)

마이뉴스
뉴스

“보험, 인슈어테크로 혁신...종합 금융 플랫폼 진화해야”

제16회 국제보험심포지엄

디지털 전환 적용해야 지속성장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발굴하고
빅테크 기업과도 적극 협업해야

국내 보험산업이 인슈어테크를 통한 혁신을 이루면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대내외적 리스크 확대로 국내 보험산업이 기로에 섰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새로운 보험 수요층을 발굴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면서 보험사의 역할과 비즈니스모델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사

가 인슈어테크 기업과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굳직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원이 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6회 국제보험심포지엄에서 국내외 보험 전문가들은 인슈어테크를 보험산업의 시대적 전환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 보험사가 디지털 전환에 적응해야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련기사 8-9-10면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사의 미래 경영환경은 매우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단 인슈어테크는 그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도 인슈어테크가 보험사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마리앙 두이겐 영국 노팅엄대학교 금

융회계학과 교수 겸 인피니티 공동이사는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변화에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과 자본의 가용성 등 요인으로 인슈어테크 혁명이 가능해졌다”면서 “인슈어테크가 보험상품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근하는 기회는 ‘포용보험’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이팅 중국 평안생명보험 부사장은 기조연설과 패널토론에서 “이전에 우리가 생존했던 영업인력으로는 고속성장기 어렵다”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디지털을 전환해야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보험회사의 진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장

은 “미국의 어떤 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바꾸었는데 다양한 서비스 중 하나가 보험금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보험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게 바뀌어야 하고,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인슈어테크 기술이 활용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평안생명 빅테크 알리바바, 텐

센슨
The JoongAng
혁신 내 힘

대한상의, 생생형 AI 영향 보고서
“금융·보험업 10% 영향받을 듯”
는 교육·농업·엔터 산업은 영향 덜해
반 한국 경제 생산액의 620조 늘 것
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습니다” A씨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자, 수 분 만에 자동으로 일단 답변이 돌아온다. 보험 청구 처리 과정에 생생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덕이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A씨의 보험사기 가능성부터 비슷한 질병의 보험금 지급 여부·규모 등을 고려해 지급 적합성을 자동으로 판단한다.

챗GPT를 필두로 생생형 AI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전체 산업 분야 중 금융·보험업에서 생생형 AI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인 전망이 나왔다. 대안상회의에서는 28일 마이코포스트(MSI·에세스프린팅 등)와 함께 발간한 ‘생생형 AI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금융·보험업은 전체 업무영역 중 10분의 1가량이 생생형 AI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2023년 11월 09일
01면 (종합)

보험업 AI 서비스 속속 뜨는데...제도 마련 하세요

입력 2021-01-10 18:01:38 수정 2021.01.10 18:03:45 김지영 기자



보험사를 관련 시장 확대 위해
'AI음성봇' 등 신기술 도입 부

2021년 01월 10일
01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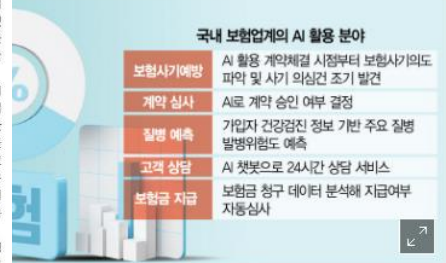
챗GPT 산업현장 뜨면, 금융·보험업서 가장 많이 사용



최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산업(9.6%) ▶정보산업(8.1%) ▶도매업(7.1%) ▶헬스케어 및 사회서비스업(6.7%) 순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거나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 산업에서 생생형 AI가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생생형 AI가 산업현장에 스며들면 계약해 입·스탈링 교육에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의 유해사용 방지를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디지탈 격차 해소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5% 미만 활용이 전체 근로자 중 32%로 가장 많았고, 10~15% 적용(24%), 15~20% 적용(22%), 5~10% 적용(2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 이상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1%에 그쳤는데, 보고서는 “생생형 AI의 확산세가 앞지러 대체로 이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생형 AI가 현시점 기업 생산 현장에 적용되면 한국 경제의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

보험산업 성장은?

인구



경제성장



α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해외진출)

인구와 경제성장이 담보되는 해외진출

인구



경제성장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해외진출)

동남아시아



구분	'22년		
	인구수(백만)	GDP성장률	생보침투율
싱가포르	5.5	3.3%	7.6%
말레이시아	32.8	4.1%	3.6%
태국	69.9	1.8%	2.8%
필리핀	111.0	4.9%	1.3%
인도네시아	276.4	4.2%	0.9%
베트남	98.2	6.1%	2.0%
라오스	7.4	5.4%	N/A
미얀마	54.8	2.9%	N/A
캄보디아	16.9	5.5%	N/A
브루나이	0.4	-0.5%	0.5%

* 자료: World Bank, IMF, Swiss Re Explorer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해외진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이유

- 회사의 규모
- 관련 규제
- 문화의 차이
- 현지 비즈니스 경험, 정보 부족
- HR Network의 부재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

인구와 경제성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수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인구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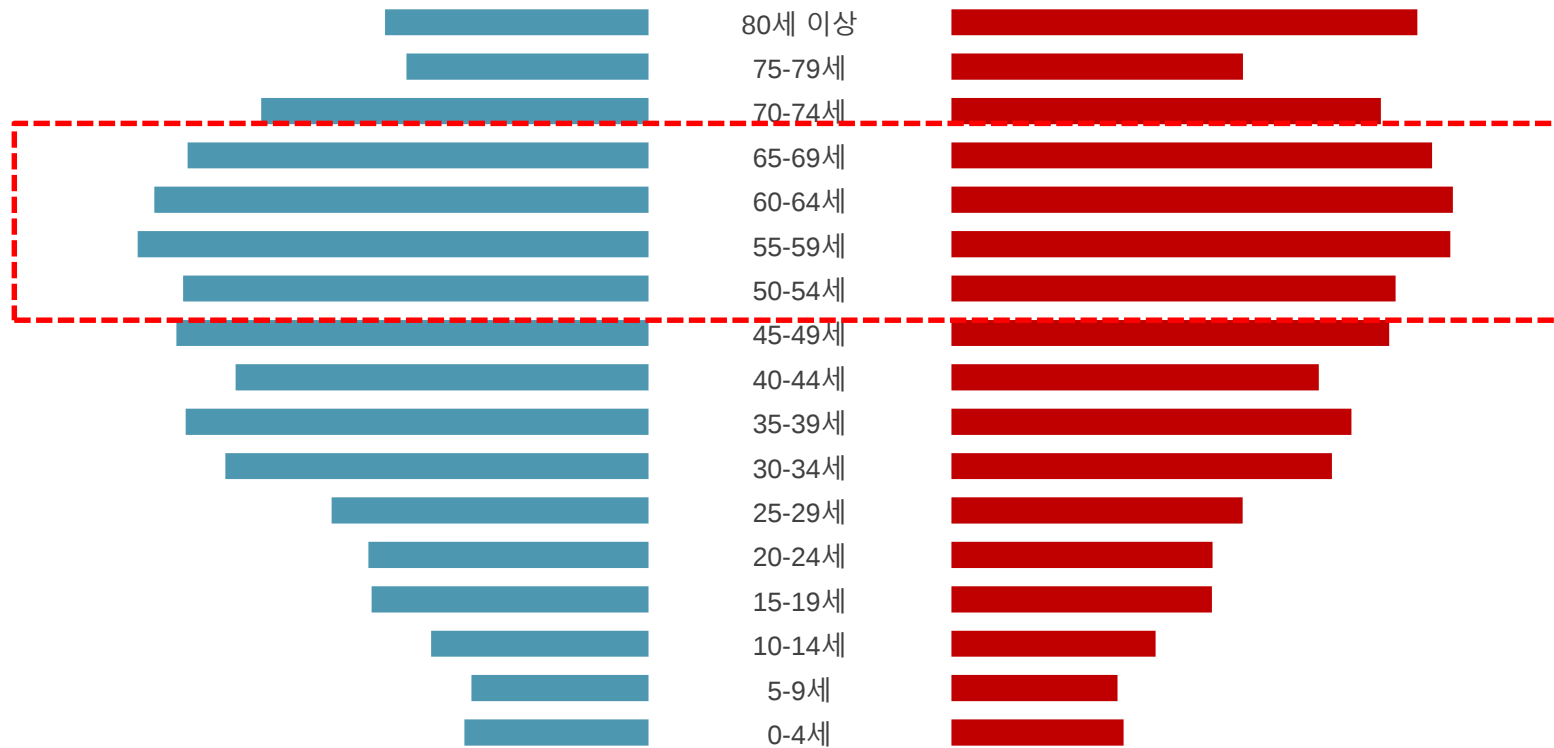


새로운 접근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

‘30

총인구 5,090만명



* 자료: 통계청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

인구와 경제성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수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인구



경제성장



새로운
Eco System 구현

IV. 미래를 위한 대응전략(새로운 접근)

새로운 접근(변화될 시장에 대한 준비)

- 주요 고객층 재정의
- New Tech 적용
- 새로운 상품 / 서비스 개발
- 자산운용의 고도화
- 새로운 Eco System 구현

앞으로의 미래는 다소 두렵지만 재미있는 세상일 것...

감사합니다.